

석유화학 정점 목표주가 하향조정

세종증권, LG화학 7만2000원에 호남 6만8000원 ... 5월 이후 강세 기대

세종증권이 3월22일 석유화학산업의 경기상승 국면이 정점에 근접해감에 따라 Valuation을 조정할 필요할 있다며 석유화학 주가에 대한 목표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LG화학의 목표주가는 8만2000원에서 7만2000원으로, 호남석유화학은 8만5000원에서 6만8000원으로, 제일모직은 2만4000원에서 2만원으로, 그리고 한화석유화학은 1만5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각각 낮아졌으며, LG석유화학은 2만7000원을 유지를 제시했다.

세종증권은 세계적인 석유화학 설비 증가율 둔화에 따른 석유화학 경기 상승은 2001년 4/4분기 이후 2005년 상반기까지 예상되며, 최근 경기상승이 정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석유화학기업들에 대한 기존 EV/EVITDA 적용배수를 5.0-5.5배에서 4.0-4.5배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석유화학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해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증대 추세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우며, 조정된 목표주가 역시 현재주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추가적인 주가상승 여력도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세종증권 유영국 연구원은 "2003년 4/4분기 이후 석유화학업종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따른 주가조정과 석유화학제품 가격 조정국면으로 최근 주가가 시장수익률을 하회하고 있으나 중국의 재고소진과 하반기 7-9월 성수기에 대비한 재고 확충이 이어지면 5월 이후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강세로 전환되면서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3/23>